

서부 캐나다 여행을 다녀와서

김 주 범 / 우리 협회 전문위원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일주일 예정으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딸아이 식구들과 아내와 나, 합쳐 모두 여섯 식구가 한 차에 길을 떠났다.

밴쿠버에서 약 120km 동쪽으로 1번 고속도로를 따라 가다 길가에 있는 Bridal Veil Fall(신부 면사포 폭포)를 구경하였다. 우거진 나무숲 사이 절벽에서 마치 신부의 면사포가 활짝 펼쳐진 것과 같이 하얀 물거품을 날리며 25m 높이로 내려 떨어지는 시원한 모습이었다.

Hope시는 산세가 험하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에 가까운 지형이 많고 곰이 좋아하는 산딸기가 많아 곰이 많이 서식하고 또한 벌꿀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웅담은 이곳 인디안들이 예로부터 산모가 술에 타서 먹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는 좋은 약이란다. 5번 국도로 Kamloops로 가는 길은 잘 만들어져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길바닥이 종횡으로 갈라져 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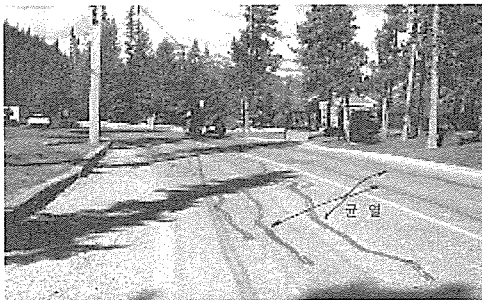
도 좋지 않을 뿐더러 주행감이 마치 자갈길을 가는 것 같았다.

이 균열들은 V컷트하여 타르로 뿔질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도로 양 옆에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들이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적당한 거리에 동물이 횡단할 수 있게 유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Kamloop시 부근의 울창한 나무숲의 일부는 병이 들어 말라 죽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소나무가 솔혹파리에 당한 것과 비슷했다. 이 도시는 임업이 주업이며 옛적에는 모피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5번 국도로 북진하다 16번 국도에 들어서 동쪽으로 향하니 눈앞에 록키산맥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Robson산(표고 3,954m)의 위용에 압도된다. 이 산은 주변에 Lynx산(3,192m), Resplendent산(3,426m), Phillips산(3,249m) 등의 거봉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있다. 이들 산은 모두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층리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층리면에는 아직 하얀 눈이 선을 긋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 작고 큰 호수가 산재해 있고 눈 녹은 물은 풍성하게 흰 거품을 머금고 아래로 아래로 흐른다. moose 호수가에서는 뿔이 큰 ELK 사슴이 풀을 뜯고



1996. 7. 4 도로 균열 보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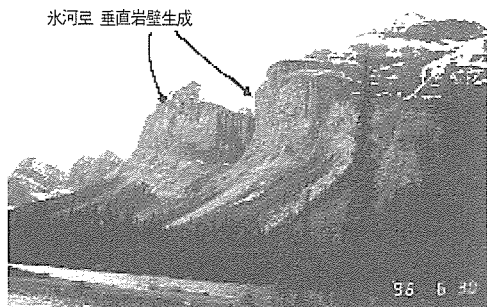
British Columbia 주와 Alberta 주 경계에는 전운모편암이 수직 경사를 이루었고 상당한 범위로 분포하고 있었다.

Jasper 국립공원에 있는 Maligne호는 길이가 22km이고 깊이는 97m인 긴 창자모양의 호수로서, 유람선은 그의 반인 14km 거리만 운항한다. 14km 지점에 있는 Spirit 섬에 내려 멀리 나머지 호수끝을 내다보면 여기서도 높은 산봉우리들이 즐비하고 빙하가 지나가며 만들어졌다는 절벽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호수 인근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아직도 빙하가 호수로 향하여 내려오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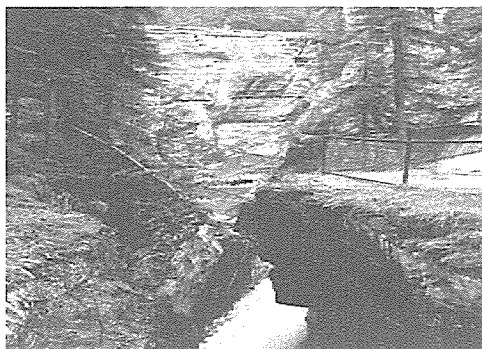
이 호수 아래쪽에 있는 Medicine 호수는 여간해서 물이 차질 않는단다. 그 이유는 지반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물이 새기 때문이며 이곳에서 새나간 물은 약 17km 하류 계곡에서 발견



Maligne Lake(길이 28km, 깊이 96m)



Maligne Lake



Maligne Canyon

되며 수량은 1.6m³/sec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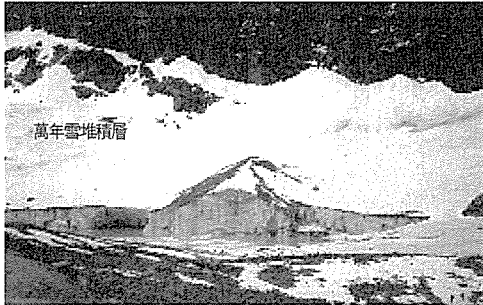
Maligne Canyon은 일만 일천년 동안 침식으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그 깊이는 약 25m이고 폭은 좁아 2m 정도인데 거의 수직으로 패이고 어떤 곳은 바위 밑을 파고 흐르며 웅덩이도 있고 그 모양이 다양하다. 제4번 교량 근처에서 Medicine 호에서 없어진 물이 용출되고 있었다.

Miette 온천에 들렀는데 이 온천은 노천 온천으로 되어 있고 여러나라 관광객들이 한테 어울려 온욕을 하는데 몸매가 미끈한 서양아가씨들과 몸이 한껏 똥똥한 아주머니, 아이들, 남녀 노소 구별이 없다. 뜨뜻한 물에 몸 담그고 파란 하늘을 보고 더우면 물 밖에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는 기분이 또한 별다르다.

욕장 바로 옆에는 금방 무너질 듯한 높은 산이 겁을 준다. 이 산은 자그만치 5억년이나 되었다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이고 꼭대기에는 눈이 아직 그대로 하얗게 빛나고 있다.

Edith Cavell 산(3,367m)에 남아 있는 빙하를 구경하기 위하여 차가운 비를 맞으며 빙하 쇄설물인 모레인을 밟으며 빙하 말단부 절개면을 보았다. 눈이 쌓인 층이 뚜렷이 나타났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눈덩이가 비에 젖어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치듯 하였다.

록키에서 유명한 Jasper 국립공원과 Banff 국립공원 사이에 있는 Columbia Icefield에 갔



Mt. Edith Cavell

사람키보다 큰 Snocoach를 타고 빙하속 5km 상류지점에 내려 구경했다. 눈이 얼어 얼음이 된 설빙뿐이고 찬바람이 일어나며 몹시 추워 얼른 차에 올랐다.

이 빙하는 400년 전에 형성되어 깊이는 320m 정도이고 눈 덮힌 면적은 325km²이나 된다고 하며 현재 눈이 녹는 물의 양이 눈이 내리는 양보다 많아지고 있고 빙하가 움직이는 속도는 일년에 15m라 한다. 빙하가 바위를 깎는다고 말로만 듣다가 이번에 이곳의 눈을 만져 보니 모가 난 왕모래같이 생긴 것이 마치 그라인더 돌 같았다.

Louise 호수는 지난해 4월에는 얼음과 눈으로 덮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것들이 다 녹아 내려 물 빛이 진한 에머랄드 색을 띄우며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냈다. 안내판에 매혹되어 이 호수 상부에 있다는 Mirror 호와 Agnes 호를, 더운 날씨에 우거진 숲 사이 길을 모기에게 공격받으면서 올라갔다 왔는데 안내간판에 속았다 싶었다 하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느냐, 경관은 좋으나고 묻는 것이 호기심에 길을 나선 것이 틀림없다. 안내판의 위력이라고나 할까?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Moraine 호로 가보았다. 캐나다 지폐 20불짜리 뒷면에 있는 호수로 역시 에머랄드 색을 띤 깨끗한 물이고 주변의 험준한 산에 둘러 쌓여 있는 조용한 호수



Columbia icefield

였다.

Johnson Canyon은 Banff 시내 가까이 있으며 계곡이 절벽이라 절벽에 다리를 매달아 폭포까지 오르게 하였고 폭포를 잘 볼 수 있게끔 굴을 뚫어 놓은 배려까지 하였다. 이 폭포는 약 8000년 전에 큰 사태로 인해 원래 하천이 매몰되고 새로 생긴 하천에 생긴 것으로 제1폭포 바닥이 2000년 동안 19m나 꽤여 1년에 2mm 마모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곳의 암석은 상부층은 dolomite이고 하부층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Bow 강은 Banff 시위를 흐르는 강으로 나즈막한 폭포가 눈 녹은 물이 많아 불만 하였고 이 강은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을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하단다. Bow 강가에는 꽤나 큰 골프장이 있었다.

여행이 끝나고 귀로에 록키산맥을 넘어 Yoho 국립공원에 들어서니 억수같은 비가 퍼부어댄다. 눈 녹은 물만 해도 개울 하나 가득한데 장대같은 빗줄기에 개울물은 팔팔 부딪치고 깨지고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리 달린다.

이런 빗속에 모험가들의 카이악을 타는 모습이 얼핏 얼핏 보였다.

Yoho 공원을 지나 빙하국립공원의 찬 기운을 뒤로 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서쪽으로 곧장 달려 12시간 만에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다.